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經濟統制와 增稅

─池田藏相의 談話要旨─

一

池田藏相은 近衛首相의 對支聲明과 併行하야 三日 財政、經濟政策에 對한 談話를 發表하얏다。要領은 이미 紙上에 紹介되얏거니와 我國은 支那의 長期建設에 入하야 占領地帶의 治安維持及 治安維持에 相當한 軍需品을 要하며、焦土로 化한 占領地의 復興及 建設에는 莫大한 資金及 物資가 必要하며 또 日滿支連繫의 生産力을 擴充하라면 巨大한 資本及 物資가 必要하니 從來의 經濟統制를 緩和할수가 업슬뿐더러 一層 强化할 必要가 잇다는것이오、또 財政政策에 잇서서는 明年度도 一般豫算外에 臨時軍事費가 相當히 計上될터인바 膨大한 公債의 發行을 보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 利拂資金을 支出키 爲해서나 惡性인플레를 防止하기 爲해서나 또 戰時때문에 軍需工業 其他에서 莫大한 利得을 본 이와 所得이 多大한 이에는 負擔의 均衡을 圖하야 增稅치아니치 못할 것이므로 負擔輕減을 要求할때가 아니라는것이다。

二

아니게아니라 我軍은 漢口陷落으로써 事變의 第二段階에 들어간것을 認識치 안흐면 안된다。支那의 心臟이라할만한 武漢三鎭이 占領되고 支那의 動脈이라할만한 京漢線、津浦線、粤漢線이 不通되엿으며 上海、天津、廣東等 呼吸孔이 다 閉塞되어 支那의 運命은 不遠하얏다할수잇다。그러나 蔣介石政權은 아즉도 安南、桂林、衡州、株州、南昌、杭州、寧波의 線을 通하야 武器를 購入하며 西南北僻地의 原始經濟及 交通을 根據하고 抗戰을 繼續하고잇다。그러므로 이것을 追擊하야 그 最後를 挫折시키라면 相當한 時日과 軍需品이 必要하며 旣往 占領한 地帶의 治安維持에도 相當한 軍需品이 必要하다。한걸음 더 나아가 破壞된 經濟上 産業上 交通上 機構를 復興하라면 各種의 生産財及 消費財가 相當히 必要할지며 한거름더나아가 日滿支가 協力하야 生産力을 擴大하라는 計畫을 遂行하라면 資金、物資의 膨大한 需要를 볼지며、이에따르는 國內生産의 增加、資源開發及利用、物資配給及消費統制、物價調整、貯蓄徹底、輸出增進、對外支拂節約、金의 增産、廢品回收、代用品獎勵及 利用等에 對하야 統制를 强化하지 안흘수 업슬것이다。

三

同時에 財政上에도 重大한 影響을 가지지 안흘수 업슬지니 첫재 明年度의 臨時軍事豫算은 當然히 支那事變公債의 膨脹을 招來하야 新規增稅를 斷行치 안흘수 업슬지며、둘재 時局關係의 好影響을 바든 臨時所得額增加에 對해서는 增稅치 안흘수 업슬지며、셋재 消費節約、貯蓄獎勵等 戰時財政을 아올러 生活에 餘裕잇는 이에게 增稅를 함은 惡性인플레를 防止함에도 效果가 잇슬것이다。그러므로 法人、個人을 勿論하고 高額所得者에게 負擔을 增加시키며、戰時利得者에게 利得의 一部를 納附케하며、物品稅의 擴大强化를 꾀하며、酒稅、砂糖消費稅를 增徵하며、茶稅、料理稅를 新設함은 不得已한 處事일것이다。

明年度豫算查定額 三十四億圓程度
下旬頃閣議附議豫定

【東京電話同盟】長期建設에 入한 戰時體制에 卽應할 明年度豫算編成은 方今大藏省主計局에서 各省要求의 豫算概算書에 對하야 查定을 進行하고잇는데 四日까지 大體로 第一段의 查定을 終了하엿스므로 主計局에서는 다시 第二、第三查定을 進行하야 大體今月下旬閣議에 附議하고저 工作을 急히 하고잇다 卽今日까지 查定을 終了한바에 依하면 明年度各省要求의 基準豫算二十八億圓에 新規要求十七億圓 合計四十五億圓(內陸海軍兩省豫算은 臨時軍事費豫算을 別個로 十五億圓程度)豫算總額에 對하야 此를 二十四億圓程度로 壓縮한 模樣으로 明年度各省要求經費는 國防充實銃後施設等 極히 積極的인것임에 不拘하고 主計局은 各省提出의 物資需要調書와 對照하야 物資動員計劃에 適合하도록 銳意減少方針을 取한것이다 그리고 그 內譯을 보면 旣定經費 二十六億七千萬圓과 新規經費 七億二千萬圓 合計三十四億圓으로 查定되야 新規要求額에 對하야는 十億圓을 削減하고 旣定經費도 一億三千萬圓을 削減하엿다 右查定豫算에 對하야는 今後各省의 復活要求에 依하야 若干異動은 免치 못할것이나 主計局으로서는 最後查定結果를 어데까지 主張하야 三十五億圓範圍內로 限定할 方針을 取할터로서 明年度豫算의 歲入도 大體如左히 推算된다

普通歲入 二十五億圓 自然增收 二億圓 公債金 七億圓 合計三十四億

그리고 一般會計豫算에 關하야 新規增稅는 行치안흘 方針이며 增稅는 今後提出할 膨大한 臨時軍事費豫算財源으로 考究하고 잇는터이다

白衣勇士에게 新宿御苑拜觀差許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 側에서는 五日부터 十一日까지 第一、第二兩陸軍病院、軍醫學校에 療養中인 白衣勇士에게 菊花가 향기로운 新宿御苑拜觀을 許하옵실 旨를 仰付하게 되엿스며 外出할수업는 勇士를 爲하야는 御苑의 菊花數十盆을 御下附하옵시어 그 病床에 一輪씩 下賜御慰問하옵신다고 拜承된다

對支院官制案 四部制로成立?

【東京電話同盟】對支院官制案은 四日의 定例閣議에서 中間報告하고 될수잇는대로 八日의 定例閣議에 附議하야 正式承認을 求하려는 目算中인바 對支院이 今後新支那建設에 向하야 積極的活動을 開始하야야할 當面의 問題는 我國의 資本과 相俟하야 治水、農業等에 關한 技術的援助가 가장 重要한 關係로 當初의 政治、經濟、文化의 三部制를 變改하야 技術部를 新設하고 四部制로 한다

匈、체코紛爭 圓滿解決

【리마二日發同盟】月餘에 亘하야 匈牙利、체코兩國間 國境紛爭은 二日後 匈牙利、체코兩國代表의 國境劃定案 受諾에 依하야 마침내 圓滿히 解決되엿다

金鶴香油 金鶴으로 ○○하야 ○○하게

天皇陛下 帝室博物館行幸吩咐

【東京電話同盟】昭和御大典奉祝御記念으로 工費三千七百萬圓을 드려 上野에 起工한 二階建鐵骨鐵筋콘크리트 二萬一千五百八十七平方米 日本風의 豪華美術殿堂 帝室博物館은 六個年을 지난 昨年秋 竣工과 同時에 獻納되엿는데 同館에서는 美術界의 一新紀元을 期하야 드디어 來十五日부터 一般에게 公開키로 되엿는데 天皇陛下께옵서는 官民一致 獻納한 赤誠을 嘉賞하사 開館前인 來十日 昭和三年十一月十日 御卽位御大典을 擧行하옵신後 十年째인 記念하옵실 佳辰을 卜하사 親히 行幸 東洋一을 자랑하는 同館과 및 빗나는 歷史를 말하는 陳列品等을 天覽하옵실터이라고 拜承된다 野口行幸主務官은 四日午前 同博物館에 赴하야 豫備檢閱을 하엿는데 光榮에 넘치는 博物館에서는 時局에 鑑하야 開館式은 廢止하고 十一日 皇族의 台覽을 仰奉 十四日 近衛首相以下 文武官關係者等을 招待한後 十五日부터 一般에게 公開할터로 杉總長以下係員은 方今 整備를 急히하고잇다

◇◇麻城에 堂堂入城한 戰車隊◇◇

辛潭鋪西方要衝 通山縣城을 占領

【南京四日發同盟】中支軍四日午後五時發表 我軍은 十一月四日午前 富水河畔의 要衝通山(辛潭鋪西方 四十키로)을 占領하엿다

岡崎部隊는 砲兵部隊協力下에 南方及 西方으로 戰果를 擴大하고 一部는 楠林橋西方二十里에 進出 이리하야 崇陽陷落은 一兩日에 切迫하엿다

通山占領經緯

【咸寧四日發同盟】富水河畔을 西進하는 我部隊는 敗敵을 쪼차 急追에 急追를 거듭하야 三日夕刻 通山南方二十里의 西坑塘을 奪取한後 四日午前九時 드디어 通山縣城을 占領하야 湖北南端의 要衝通山縣城에는 日章旗가 飜飜하고잇다

崇陽陷落切迫

【咸寧四日發同盟】咸寧으로부터 南進하는 我岡崎部隊는 敵의 二個師를 蹴破하고 四日正午 楠林橋를 占領하엿다 楠林橋는 崇陽東方八十里 長沙、咸寧街上의 要害이다 約二萬의 敵은 必死코 이 要害에서 我軍을 阻止코저하엿스나 我猛攻에 依하야 脆弱하게도 潰走 敵은 退却에 當하야 放火하엿스므로 楠林橋는 方今 猛焰이 天을 衝하고잇다

宮崎、宮脇兩部隊 岡崎部隊와 劇的握手

【咸寧四日發同盟】富水에 沿하야 西進한 宮崎宮脇兩部隊는 四日朝通山을 奪取하고 繼續하야 西進 四日午後三時半 楠林橋에서 岡崎部隊와 感激的握手를 하엿다

蔣介石 華僑의 援助繼續을 哀願

【香港四日發同盟】廣東、武漢失陷後 華僑의 失望은 甚大하야 蔣介石에 對하야 詰問狀을 發하는 數가 每日數十通을 超過하고 綱紀를 肅正하야 徹底抗戰할것을 要求하고 잇스므로 蔣介石은 『華僑에게 告하는 書』를 發表하야 繼續援助를 求하엿다 이와同時에 中央海外院 僑務院에서도 華僑에 打電하야 『廣東의 回復에 關하여서는 이미 準備가 完成되고 他方廣東軍政當局에 對한 責任의 所在도 明白하게 하엿스므로 中央을 信任하고 援助를 繼續하기 바라다』고 哀願하엿다

省境德慶附近서 廣東、廣西軍衝突

【廣東四日發同盟】十一月一日以來 廣東 廣西 兩省의 省境 德慶上流의 各處에서 廣東軍과 廣西軍이 衝突하엿다는 情報가 沙面의 外人側에 傳하엿다 卽去月二十一日 皇軍의 廣東占領에 西江을 遡江하야 潰走한 廣東軍과 廣東戰線救援을 爲하야 梧州를 出發하야 來援中이던 廣西軍二個師가 德慶附近에서 遭遇하자 廣西軍은 廣東軍이 거의 抵抗을 하지안코 廣東을 放棄한 無氣力을 詰難하야 그 退却을 阻止하려고한데서 小衝突을 惹起한것으로 이 衝突은 一日以來 各處에서 버러지고잇다

楠林橋一帶의 二萬大軍潰走

【咸寧四日發同盟】楠林橋에 對한 我急襲은 實로 神速果敢하기때문에 敵은 約二萬의 大軍을 擁하면서 潰走되여 狼狽한 敵은 西南方에 向하야 潰走中으로 我航空部隊는 四日午前十時頃 途中退却中의 敵二萬餘의 騎馬隊를 爆擊하야 三分之一은 卽死 他는 四散시켯는데 이는 通山、崇陽守備司令官의 一隊로 보인다 鹵獲品은 常用車二輛外 武器彈藥多數에 達한다

經濟懇談會出席次 王部長上海로出發

【南京四日發同盟】維新政府實業部長 王子惠氏는 來二十一日東京에서 開催될 日滿支經濟懇談會에 出席하기 爲하야 來十五日連絡船으로 上海를 出發하게되엿다 그리고 王子惠部長은 會議終了後 大阪、福岡에 下車 歸途新京에 赴하야 二十四日 同地에서 開催되는 經濟懇談會에도 列席할터이라한다

勝尾、岡本兩部長 官民百餘名을招待

今般 朝鮮軍報道部長에 新任한 勝尾少將及 岡本第二十師團報道部長은 官界 實業界新聞關係者 百餘名을 四日午後三時 半島호텔에 招待하고 新任披露宴을 開催하얏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四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近衛首相以下各閣僚出席(池田藏相缺席)船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官吏制度審議會의 經過及 對支院의 官制案의 作成에 關하야 中間的報告가잇고 午後零時散會하엿다

閣議決定事項
一、朝鮮道立醫院官制中改正의件
一、朝鮮所得稅令中改正制令案
一、朝鮮營業稅中改正制令案

在支米國系敎會 對日軍需品輸送阻止要請 米國姉妹敎會에

【紐育三日發同盟】三日紐育에 達한 AP重慶電에 依하면 支那에잇는 米國系五大學及 新敎派二十敎會代表는 三日米國의 姉妹敎會에 對하야 左와如한 公開狀을 發送하야 對日軍需品輸送阻止를 要請하엿다 吾人은 石油其他軍需品을 日本에 輸出하고잇는 各商社에 對하야 貨物輸出停止를 要請하고 同時에 各商社가 그 輸出을 停止하지 아니할境遇에는 그 輸送을 阻止키 爲하야 다른 處置를 考究하라고잇는다

004048

在京外國人에게 政府聲明을說明
南總督國際親和會席上에서

京城을 中心으로 사는 外國人 團體로써 組織된 京城國際親和會 今年度總會는 四日午後四時부터 朝鮮호텔에서 南總督、大野政務總監을 비롯하야 京城在住 外國人約 二百名이 參集 會長 人事에 뒤이어 南總督은 今次事變下의 日本의 立場과 日支關係의 新事態에 關하야 昨三日帝國政府가 中外에 闡明한 聲明을 强調하야 約一時間에 亘하야 人事를 述하엿다 [illegible]

帝國聲明과 列國의 反響

毅然한 態度에 伊政府側大贊成

【羅馬三日發同盟】廣東 漢口陷落後의 極東의 動向에 對하야 伊太利朝野는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는바 伊太利政府當局은 三日 日本政府對支聲明이 一、萬若 國民政府가 蔣介石을 追放하고 共産黨과 絕緣하면 國民政府라도 拒否하지안흘用意가 잇는것 一、日本의 軍事行動을 妨害하는 國家가잇다면 그 國家의 旣存權益無視도 不得已하지안흘수업다는 信念을 明示한 點等을 重視하고 伊太利政府는 從來 日本의 毅然한 態度를 보지못한 多大한 好意를 가지고 內로 實力을 蓄하고 外로 斷乎所信에 邁進하는 態度에 滿腔의 贊意를 表하고잇다

"中國은抗戰으로 和平을求할뿐" 大公報의反駁的論評

【香港四日發同盟】今日大公報는 社說에『日本政府의 新聲明』이라고 題하야 大要如左히 論評하고잇다

日本政府는 三日聲明을 發表하고 同時에 近衛首相은 라디오를 通하야 日本의 今後意圖를 闡明하엿다 吾人은 此를 讀하고 感한바 甚多하엿다

第一、聲明은 冒頭에 國民政府는 이미 一地方政權에 不過하다고 述하고잇는데 此는 事實과 相異하다 中國의 重要地域이 日本軍에게 占領된것은 事實이나 國民政府는 全國民이 此를 認定하고 國外的으로도 亦是承認되고잇는것은 日本이라도 決코 認定치아니치못할것이다 日本은 國府가 降服하기까지는 斷然休戰치안흘決心이라고생각하나 國府도 當然抗戰의 一途에 邁進할터이로 日支和平의 可能性은 全然업게되고 그 責任은 暴虐日本側에잇다

第二、聲明中 國民政府가 그從來의 政策을 變改하고 人物構成을 改善하야 新秩序建設에 邁進하면 日本은 決코 此를 拒絕하지안는다고 말하고잇다 이點은 去一月十六日의 聲明과 比較하면 相違된 點이잇다 이것은 日本이 國府의 意思가 强固함에 鑑하야 그 聲明을 變更한것인지 或은 中國에 對한 認識不足을 改正한것인지 判然치안흐나 特히 日本人에게 바라는바는 國民政府는 最初부터 反日的政策을 取하지 아니하엿다는 點이다 또 日本은 容共云云을 말하나 容共은 形式上의 問題이며 實質은 國府도 反共이다 日本이 中國을 征服하는것이 아니고 또 國府를 打倒하는것이 아니라면 和平問題를 解決하는것은 그다지 困難치안흘것이다

第三、近衛首相은 日本이 支那에 希望하는바는 中國을 滅亡시키려는것이 아니고 此와 協力하야 참된東亞安定을 希望하고잇다고 說하고잇는데 此는 論은 사람을 움직이기에 我等을 感動케하엿다 그러나 遺憾인것은 日本은 그 行動의 모두가 正反對라는것이다 日本이 中國의 興隆을 바란다는것이 그 手段에 잇서서 正히 中國을 破滅하려고하고잇다 吾人은 近衛首相이 親히 中國에와서 이實情을 體驗하기를 希望한다 近衛首相의 地位는 이제야 東亞全局 百年의 運命을 決할重責을 擔當하고잇다 吾人은 中日兩民族의 今後의 動向에 關하야오로지 近衛首相의 努力에 바랄바 多大하다고 생각한다

第四、吾人은 率直히 말하겟다 日支兩國은 方今 仇讎이나 中國이 戰爭하고잇는것은 根本的으로 自衛를 爲함이다 日本이 그態度를 變改하야 停戰撤兵한다면 中國은 반드시 和平에 應할것이다 以上四點은 吾人이 敢히 近衛首相의 時局收拾에 期待하는바로 우리는 抗戰으로써 和平을求할뿐이다

巴里政界엔 消極論이 有力化

【巴里三日發同盟】三日의 近衛首相의 라디오放送은 巴里政界에 相當한 反響을 與하야 特히 西歐帝國主義排擊의 言句가 重視되고잇다 巴里소아르紙는 佛國有力側의 談話와 함께 此記事를 揭載하고 『日本의 對支方針은 이미 歐羅巴諸國의 손으로는 左右할수업게되엿다 佛國으로서는 印度支那의 國境에 在支權益保全의 方途를 講究하는 程度라는論이 漸次有力化하고잇다』 [illegible] 이保全만되면 그 以上참고잇을수박게업다」고 消極論을 述하얏다 佛國의 이와가튼 消極的態度도 英國의 態度如何로 修正될수도잇스나 大勢를 움직일수까지 消極化할른지 어떨른지는 疑問이며 [illegible]

辭令

十一月四日發令

任總督府技師(五等) 中里 千春
總督府稅關鑑査官 中里 千春
命殖産局勤務
總督府稅關鑑査官補兼總督府稅關技手
總督府水産製品檢査所技手 渡邊 得治
命總督府稅關在勤
任總督府稅關鑑査官(七等)
(平北)朝鮮土木主事 淸川 恭司
(平安北道)
補平安北道産業主事(七等待遇)
任朝鮮産業主事 栗林 勘正
(平安北道廳)
補平安北道土木主事(七等待遇)
任朝鮮土木主事 中田 富二
(平安北道技手)
補平安北道土木技師(七等待遇)
任朝鮮土木技師 萩尾 次郎
(光州府技師)
補光州府土木技師
命總督府司法官試補
京城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 齋藤格之助 姜 仲仁
(各通)
命總督府司法官試補
京城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
務를修習함 渡邊宗代松 閔 丙昌
(各通)
命總督府司法官試補
咸興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
務를修習함 小池 政人 崔 宗錫
(各通)
命總督府司法官試補
光州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
務를修習함 佐佐木 豫 孫 東 頊
(各通)
命總督府司法官試補
大邱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
務를修習함
(各通)
命總督府司法官試補
全州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
務를修習함 小原 正列 諏訪榮大郞 敵 [illegible]

本社參觀

十一月四日
平壤、崇仁商業學校生徒 四人
(朱寧赫氏引率下)
瑞山支局後援 京城視察團員二十一人(李敏暉氏引率)
咸南鎭興小學校兒童八七名 (尹承郁氏引率)

人事·集會

▲田野中吉藏氏(專賣局開城出張所新任人事次來社
▲池田林儀氏(京城日報主筆)洋行人事次四日來社

夕刊後市況 四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花 綿絲 後引◆

	當限	中限	先限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オーバ 三揃 現金問屋
冬物品揃!!! ●商報進呈(店章印押捺) 御來阪之時來店歡迎 ●御通信は日本文ニテ
大阪市東區島町一丁目二十 株式會社 圓山商店 振替大阪57429

ナ名有番一 ナ秀優番一
グロリアバンドハーモニカ
無敵ノハーモニカ 荒鷲号

カタログ呈
ギター界ノ代表 シレネギター バイオリン 總發賣元 中井樂器店 大阪 日本橋四丁目 電話戎 一五二三番

錢入 袋物現金問屋 (商報送呈)
大阪市東區博労町一ノ二六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振替大阪六四三七五番

冬物大衆向
羅紗洋服荷揃
三ツ揃、兩前オーバ、詰衿上下 朝鮮服オーバ・長ズボン・ジャンバ ゴルフズボン
大阪市東區谷町一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三〇三五番
店章捺印ニ限リ定價表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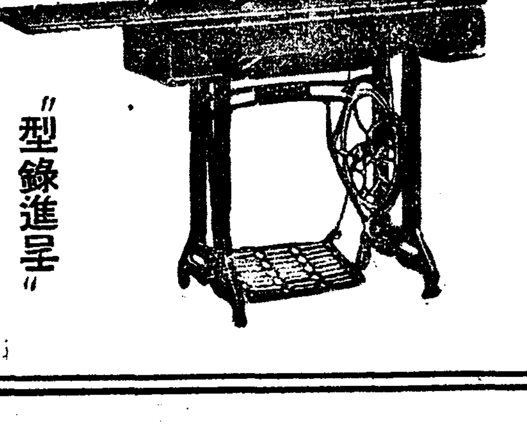
婦人子供服用
ボタン・バックル
大阪市東區谷町一丁目 中川釦店 電話東五一二二番
郵券壹圓要ス 新見本送呈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綫、朱子、人絹
人絹綿布端切各種卸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二三三號函
商報送呈 見本은五十錢要(切手)
津村合資會社 電話南一四八九番 振替大阪一三八三三番

食料品 オブラート バター 製菓材料 藥價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新興からし 新興蕃椒粉
日本物産株式會社 山商商店 阿部本店 辻本商店 吉川商店 桑田商店 江口商店 山七商會 重枝商店 小野本店 中村商店 德元商店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コシヨ 製造本舖

メガネハ 京城帝大眼科 京城医專眼科 京城公眼科 京城赤十字眼科 御指定
京城本町一丁目入口 中村眼鏡店 電話本局五〇一七 振替京城三〇四六

代理地方店大募集
アジヤーミシン特長
1純鋼鐵製로서操作이經快하다
2騷音이全혀업고 縫目이精密하다
3十二個年保證付로價格은低廉하다

"型錄進呈"
アジヤーミシン製作發賣元 朝鮮ミシン商會 營業所 平壤府新倉里一三二 電話二四九八番 振替京城二四六五五番
組立工場 平壤府新倉里一三二 塗工場 平壤府黃金町一丁目
國產品의最高峰 アジヤーミシン出現

映畫ファンへの一大プレゼント 二大名畫獨日!
十一月五日(土) 十一月六日(日) 正午開始(一日三回續映)
劇演座映畫部
☆獨乙バワリア映畫 イブセン原作 ペーア・ギント フリッツ・ヴェント ハウゼン監督 ハルツ・アルバース マリールイゼ・クラウディウス主演
☆東寶東京發聲映畫 阿部豐監督 太陽の子 大日方傳 逢初夢子主演
☆パラマウント映畫 ポパイの彫刻家 漫畫
入場料 均一 二十錢
於 府民館

鎭安郡白雲面事務所 職員一同
鎭安郡馬靈面事務所 職員一同
鎭安郡聖壽面事務所 職員一同
鎭安郡白雲小學校 朴在林
鎭安郡 馬靈面 深在洪
前田義信
李輔運
鎭安郡馬雨里面平地里 吳光烈
馬靈分局設置
購買店舖

戰時利得稅增徵 物品稅는擴大强化

酒稅、砂糖稅等은增徵、茶稅等은新設

朝鮮도相當한程度의追隨難免

第二大增稅는必至

장기전 제삼년에들어가는 명년의 국가예산은 당연히 팽창하게되여 군사비(軍事費)와 기타국책사업의 관계로 명년에다시 증세를 하지안흘수 업다고전한다 이는장기전에 임하야 일면전쟁, 일면건설을 위하야서는 피할수업는일로 정부의 방침이 증세로 결정됨에따라 조선에서도 당연히 증세가잇슬것은 각오치안흘수 업는바인데 이증세는 명년예산에까지 실시케된다는 사변후 실로세번째 되는것으로 일반국민은 그만큼 사변에대하야 일층 기여하여야 될형편에잇다 대장성의 증세에대한 방침으로 전하는바를 참고해보면 증세의이유로는

림시군사비가 늘어가므로그만큼 이에충당키위하야는 그재원이로써 새로히 증세를하여야할것인데 일면에는시국판게로 남달리이익을보는것도만흐니 시국판게로 실업자도만흔이때에 시국의혜택을 받는그들에게 당연히 증세를해야할것이며 또소비절약, 저축장려등을 장려하는때문에 여유잇는 재산가계급에는 그만큼 더유리하니 그런방면에증세를 해야겟다는것이다 이가티하야 증세를하는데는

우선부담능력이 잇는방면에 증세를하고 또사변때문에이익을더보고잇는방면에 그소득에 따라서 더증세하고 일방에는 일반대중에게도 증세를 하도록하야 종래의 물품세(物品稅)의 품목을늘리고 주세(酒稅) 사탕세(砂糖稅)등을 올리며 차세(茶稅)요리세(料理稅)등을 또새로설정한다는것이다 내지에서 증세를 하게되는이상 조선에서도 당연히 증세하지안흘수 업는데 전기의방침에의하면 물품세니 사탕세 주세 차세등은 결국 소비세(消費稅)의 항목에 속하는것이어서 대중의 소비정도에따라서 부담케될것이고 그외에 사변관게로 이익을 보는방면은 지금까지의 임시이득세를 강화할것으로 보이나 일면의 부담의 여유잇는 방면에는 그만큼 그소득에 따라서 증세하게 되리라는점은 사회각층을 통하야 소득여하에따라 증세를 될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조선의 사정에 비추워보다면 조선은 수년전 세제(稅制)의 일부를 개정하야 국세로 개인소득세만을 설정하고도 아직 세제의 체게를 제삼소득세즉 개인소득세의 체게하에 두지못하고잇서 아프로 내지와가티 도세(道稅)부읍면세(府邑面稅)등도 당연히 개인소득세체게하에 둘것이 전제로 되여잇서 작년과 금년이개년을 두고 그준비조사를 하고잇섯는데 대략명년도까지에 그안이 성립될예정에잇섯다 이런사정으로보아 명년도에 조선에서 증세를하게된다면 동시에세제를 개정하야일반의부담의 균형을엇게하는동시에 그수입을더엇도록하게되지안홀까하는것이 크게주목되고잇다 가티하야 조선에도상당한 정도의 증세는 미리각오하지안흘수업는터이다

길일코집일코

우리집은 남대문(南大門)정일번지예요하고 길거리를방황하는어린이가 종로서에보호되여잇는데 생활난으로 버린아이인지 그러치안흐면 집일흔아이인지 몰라서 경찰이두동일는다 사일오후세시경 종로일정목사십오번지압길거리에 시모호리(下堀)라는 학생복에한 운동화를신은 어린이가 방황하므로 종로서원이 발견하고본서에보호하면서 조사해본결과 일홈은 박봉식(朴奉植)(十)으로 아버지박재운(朴在雲)과함께 기차를타고 신의주까지갓스나 아버지를 차안에서 일허버리고차장이경성까지 태워다주엇는데 자기집은 남대문칠번지라고하얏다 즉시 경성역에 조회하야본결과 사실 며칠전에 그러한어린이가 무임승차하얏슴을 발견하고하차시킨일이잇다하므로 그어린이의 채탐채탐으로 미루어보아서 만주로 유랑의길을떠나는 아버지가 고의로차안에 버린아이가안인가하고 경성부에 인도하야양육시키도록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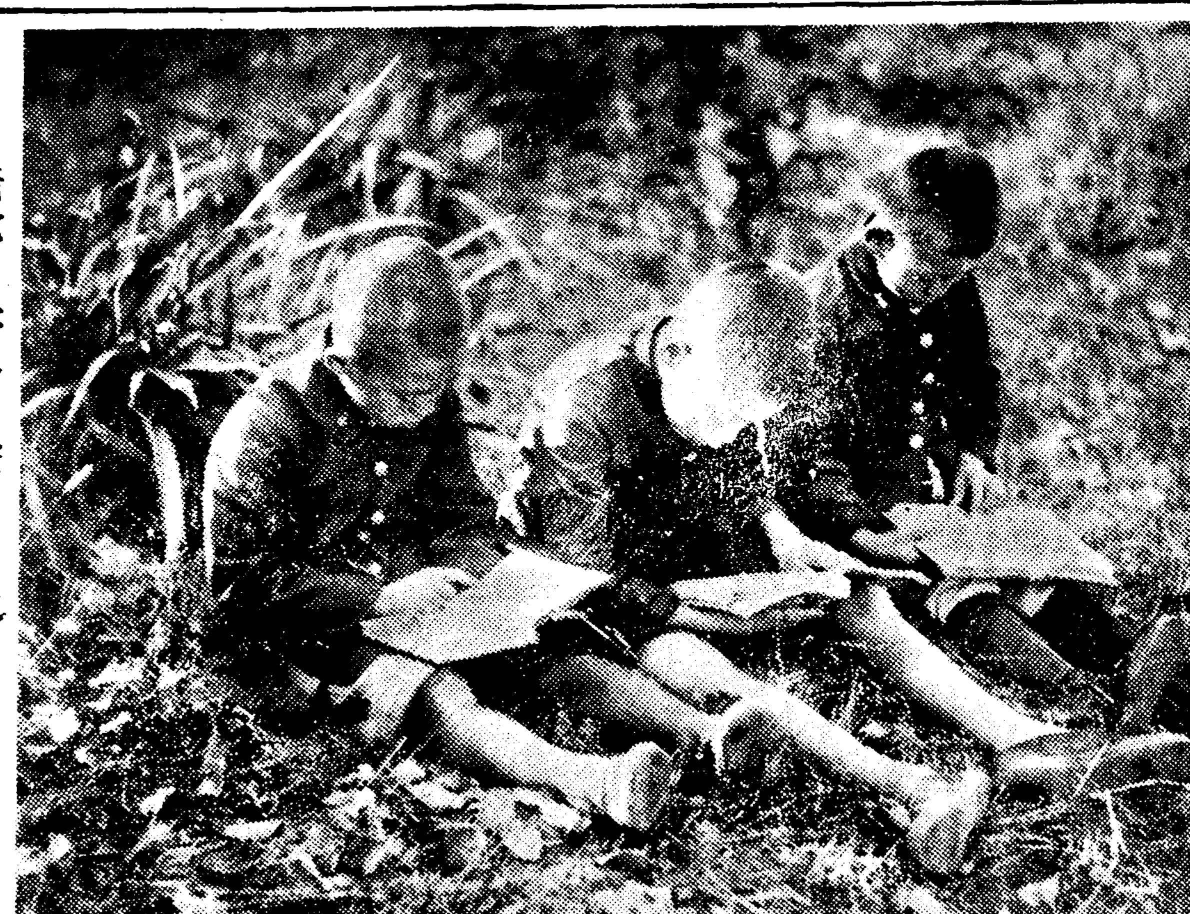
出奔한薄情女

부내 숭인정(崇仁町)삼십일번지의 십이호이태웅(李泰雄)의처 김보옥(金寶玉)(二○)은 지난삼일 잠깐다녀온다고 집을나간채 이래도라오지안허 안해를 일흔남편으로부터 사일동대문서에수사원이 드러왓다

正札制販賣不良

商工課서總動員調査

【咸興支社發】함남도상공과(商工課)에서는 최근함흥시내의 각상점에서 정찰제(正札制)판매를 하지안는다는것을 알고서근일중계획을 총동원시켜 상점을 호구적으로 일제조사를실시키로되얏다고한다 정찰제는 처음실시할때에는 그성적이 자못양호하얏섯는데 그후에와서 점점그실행을 게을리하야 지금에와서는거의 무정찰판매의 그전을재현하고잇는상태에잇다고한다



清秋·野外의學習 ([illegible]日 郊外에서)

景品附賣出은中止 奉仕賣出로現身

京城商街의年末景氣打開策 道當局도諒解許可

해마다 세말만되면 의례히점두에 내다걸려 넉넉지못한 고객들의 식욕만 자극해오던〃세말경품부 현상대매출〃의 데모도금년부터는 시국판게로 일체이런종류의 투기적사행심만 붓도다주는장사를은 엄금이 되여버려 일반상인들은 세말이가까이닥처와도구멍을막어낼재조가업서서 상가의초조한말이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한 경성상공조합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로 머리를 썩혀그타개책을 강구중에잇던바 수일전여기대한 대체의복안이 서게되여 이것을 도보안과에 제출 양해를구한바잇섯다 이제 그제출된 대안(代案)의내용을보건대 종래처럼고객의투기 사행심을 자극하기수운소위 경품부현상대매출을고만두는대신에 『세말특별 봉사대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팔되사행적인 상하가 업고서도 물건은 물건대로 되도록 만히팔수잇도록 각가맹상점에서 일률적으로 오분할인으로 팔자는것이다 즉조합측의 의견으로는매상고일원마다 오전이라는 특별봉사인환권을부처주어 고객은이인환권을 다시모하가지고 어느가맹상점에서든지 마음대로물건으로 바꿀수잇도록 하자는것인데 조합측의 예상으로서는이러캐만하면 십이월십일부터 삼십일일까지에 동조합 가맹상점일천이백곳에서 적어도 육십만원의 매상고는 넉넉히넘길수잇스리라고 보고잇다는데 여기에따러처음에는 오분할인으로 인한각상점인 결손보상책이 문제아닌배도아니엿스나 조합측에서 삼천원 그리고경성부에서 이천원이라는 보조를 끄러내기로되여 이문제는 이미낙착을 본세음이라고한다 남은문제는 도보안과의 태도여하이나 보안과로서는 일률적인할인매출이라면 구태여 막을게재가 못된다는 의견으로 그대로 시원스리 허가해주기로 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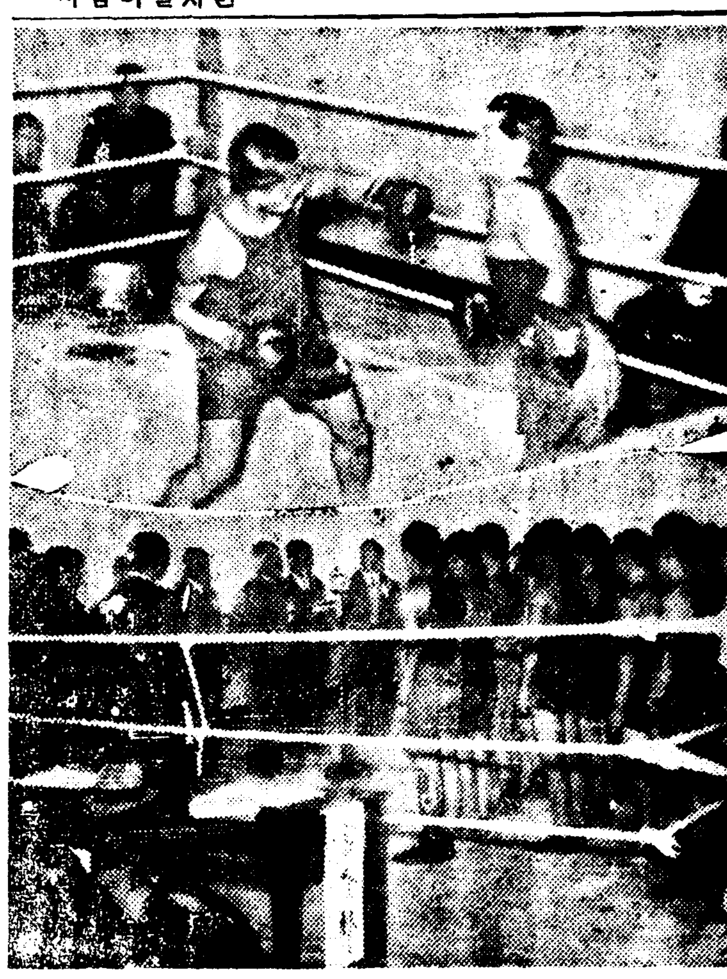
※比島派遣 朝鮮豫選※

링"의王者는누구? 燦然·爭覇의血戰

今夜、各級準決勝戰

전조선권투련맹주최와 조선체육협회, 본사공동후원의 제오회전조선권투선수권대회(第二回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겸 비률빈 원정조선예선전(比律賓遠征朝鮮豫選戰)의 제일야(第一夜)는 예정과가티 사일오후일곱시부터 태평동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이대회에 참가한 삼십이명용사의 입장식이잇서 먼저 국가합창(國歌合唱)이끝난다음 황거요배(皇居遙拜)일분간의 황군무운장구기원(皇軍武運長久祈願)이잇슨다음 [illegible]택(梅擇)씨의 회장식사(會長式辭)대독과 참가선수일동을 대표하야 동권(東拳)한룡하(韓龍河)군의 선서문(宣誓文)랑독에 뒤이여 황윤수(黃允秀)씨의 심판에대한 주의설명이잇슨후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제창(誓詞齊唱)이잇슨다음 풀라이급제일회전으로부터 대회의막은 열리엇는데 제일야의 각게급의 전적은 다음과가트며 벽두부터〃녹아웃〃속출하는열전을 전개하야 만장을 흥분케하엿다 이리하야 금오일밤에는 각급의준결승전을 행하기로되엿다

【풀라이級】(第一回戰)
金仁泰(東拳)TKO 閔根洙(東拳)
▼…審判 道源一氏
韓一男(青拳)判定 李福成(朝拳)
【풀라이級】(第二回戰)
▼…審判 金明坤氏
李敦鳳(青拳)判定 朴聖天(朝拳)
【웰터ー級】(第一回戰)
▼…審判 金鍾濚氏
李龍圭(東拳)判定 李敦祥(青拳)
(第二라운드二分五十六秒)
金 鍋(東拳)KO 金周鉉(無所)
【페더ー級】(第一回戰)
趙基漢(朝拳)棄權 徐相燮(青拳)
【빤탐級】(第一回戰)
▼…審判 金裕昌氏
梁政模(東拳)棄權 張大賢(無所)
李啓烈(青拳)判定 姜快石(朝拳)
(第一라운드[illegible])
韓[illegible]KO[illegible]
(第一라운드二分三秒)
(第二라운드一分五十八秒)
[illegible](青拳)KO 宋[illegible](青拳)
[illegible](東拳)判定 方[illegible](青拳)
▼…審判 金明坤氏
▼…審判 黃[illegible]氏



◇…寫眞은 昨夜拳鬪大會의 入場式(下)과 競技光景(上)

全朝鮮綜合蹴球

中央、養正을一蹴

一般部에咸興軍이優勝 今日、中等戰과延普戰

朝鮮蹴球協會主催의 第十九回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第三日은 四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中學部準準決勝戰과 一般部決勝의 咸興蹴球團對京城석카ー團戰을 擧行한바 一般部決勝戰인 三地方對抗의 優勝된咸興軍과 京城석카ー의對戰은 實力의差로 咸興軍悠悠히 이것다 이리하야 十九年의長久한 歷史를가진 朝鮮體育會優勝旗와 밋가지가지의優勝商品을 膳物로압세우고 咸興軍은 四日밤車로 凱旋의途에올랏다 그리고 人氣의 焦點인 延專對普專決勝戰은 今五日 午後三時半부터 擧行될터이다

◇中學部(準準決勝)

中央5 養正0 【前3…0 後2…0】

中央中學對養正中學戰은 同日午後二時二十七分부터 金永濟(主審)金在弘 金福卿(線審)三氏審判下에 養正軍키어프로 開始된바 前半에 中央開戰十三分에養正門前까지 突擊하엿스나 凡蹴으로 마치고 十五分養正 GK 『파이브·슐』을 犯則하야 中央의 [illegible] 亦是無爲 二十分 養正逆襲하야 LW의 『트리블』 中央門前까지 肉迫하야 [illegible] 새GK善防으로동을이루지못하다 三十一分 中央果敢攻으로 敵門前에서 『오프사이드』로 無爲되고 二十三分에는 中央CH의『패스』는 LI許讓失하니 GK防禦微弱하야 中央LI의 再次失으로 幸先의一點을엇지은後 二十八分에는 RW李源錫과 三十五分에는 LW吳秉天의失으로 二點을加하니 三對零으로 中央『리ー드』 後半戰에들어가 十四分에 養正LI金成學 『듸리블』進擊하엿스나 RF의 『카ー번』로 빌은 다시 中央線을넘어 養正守備陣을 混亂케하더니 十七分RW李源錫의失으로 四對零 二十分에 養正LW의失은 『크로스바ー』를넘어 得點의機를 노치고 [illegible] 어가 培材軍과 對戰케되엿다 (게임七十分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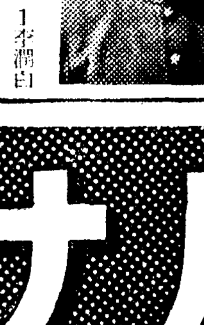
◇一般部決勝

咸興4 석카(京城)0 【前2…0 後2…0】

咸興蹴球團對 京城석카ー團戰은 同日午後四時十二分부터 茂英(主審)金福卿、徐承德(線審)三氏審判아래 京城석카軍킥어프로 開始된바 前半戰二分에 LW李澤求、三分에 權熙昌(京城)의 咸興GK의堅[illegible]

[illegible]

【京城석카ー】
GK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咸興蹴球團】



延專李潤白君 五千一着

【東京電話同盟】國民體育大會第二日…全日本自轉車選手權(四日午前十時神宮競技場)의 決勝經過는 다음과갓다

【五千米速度競走決勝】1李潤白(延專)八分一秒九
【一千米團體追拔競走決勝】1赤組(石塚、李潤白、小塚)三分十一秒八 (寫眞은 李潤白君)

國民體育大會第二日

【東京電話同盟】國民體育大會第二日의 四日은 銃後의 體育運動을 祝福하는듯한 好天氣下에 競技者의 意氣는 軒昂하야 午前十時 外苑競技場에서 全日本自轉車選手權 競技가열리고 我國最初의 『자이클·볼』 에 興味를이끌고잇스며 하키ー女子送球戰等이 展開되고 또野球場에는 東都大學리ー그紅白試合、相撲場에서는 早慶兩軍의 對抗相撲과 레스링이 擧行되는等 神宮聖域은 文字그대로스포ー츠殿堂을이루고잇다

朝鐵柔道連勝

第二回門鐵對朝鐵柔道戰은 一日午前十一時十分부터 龍山鐵道養成所道場에서 擧行된바結局 朝鐵軍이六對四로 連勝하엿다한다

延、普蹴球豫想記 本紙四面에揭載

雇傭은실소

家庭에反旗들고少女出奔

죽으면죽엇지

남의집하녀로는가기가 실다고 가다가 도중에서 도망해버린소녀가잇다 이소녀는 부내가회정(嘉會町)일[illegible]번지 정갑순(鄭甲順)의 [illegible] 정기남(鄭基男)이라는 열다섯살먹은 소녀로서 넉넉지못한 살림에 하는수업다고 그의 아저씨가 [illegible] 보내기로하여 드러가잇서라고 실타는것을 억지로 끄을고 [illegible] 팔아넘길작정으로 다리고가다가 [illegible] 갑작히 소변이마렵다고 핑게를대고 어데론지 다러나버린채 이래도라오지안허 [illegible] 딸을 노처버린 전기정갑순은 사일동대문서에수사원을 내여왓다

車中의迷兒

사일오후일곱시삼십오분 목포발 (木浦)도착 제삼백칠열차에서 이야손(李夜孫)(六)과 김영순(金英順)(六)이라는 두소녀가 갈바를모르고 갈팡질팡하는것을 승무원이발견 강원도평강서(平康署)원에게 인도하야 지금그서에서 보호중이라는데 이야손은 단발에 수병복을입엇스며 자기집이 모사상을한다하엿고 김영순은 [illegible]을입엇고 자기집은 당면장사를한다고말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전조선각지에수배하고 어린애이러버린사람을 찻는중이라고한다

두處女의行方

함흥(咸興)산수정(山手町)이정목오십구번지 윤숙자(尹淑子)의둘째딸 김금전(金音全)(一七)이라는소녀는 지난달이십육일 가튼동네에사는 어고분(魚古粉)(一七)이라는소녀와 손을잡고 경성방면으로 도망을 갓다는데 시내동대문부근에 아는사람의 집이잇서 혹은그곳에 가잇지나안나해서 사일친권자로부터 동대문서에 수사원을보내엿다

初生兒가飮毒?

警察怨恨關係有無를嚴調中

사일오후세시경 부내동숭정(東崇町)일백삼십번지 천매국 직공 김용태(金龍泰)의처 박씨(朴氏)(二一)가 생후 한달밖게 아니된 갓난아이 동엽(東燁)이를 집에다 누펴노코 동세 박씨(朴氏)(二一)를보고 애기좀 보아달라고부탁한후 그동내 우물가에 기저귀를빨러 나갓다가 도라와보니까 어린애가 몹시울며 고민하고잇스므로 수상히녀겨 곳대화병원에 업고가서 진찰해보앗더니 양재물가튼 독물을 먹은것이 판명되엿다는데 보고를접한 동대문서에서는 생후일개월의어린애가 제손으로 양재물을 차저먹엇슬리는 만무하다고하며 혹은 배후에 어떤 원한관게로어린애를 치독모살하려던 음모나 잇지안흔가하고 즉시 집을지켯다는 동세를 부잡어다가 엄중히문초중이다

伊機歡迎節次

航空局關係者準備協議

【東京電話同盟】방공국가 일이(日伊)의수도로마 동경간의 왕복이백시간의 신기록수립을 목표로한 이태리공군의정예 『화양트』기(機)는 오는칠일 로마를떠날터이니 십일일에는 동경에도착할예정으로 체신성항공국에서는 그환영절차에 대하야 사일 현의회를 열엇는데 착륙지는 군비행장으로 내정하고 [illegible]

異國의密漁船

仁川近海의禁漁區에侵入햇든 靑島의漁船、警備船員에發顯

【仁川】이국의 생선도적이 인천근해에서 표박=지난이일오후두시경에 인천항에서약이백리쯤되는 충남격렬비도(格列比島)에 경기도수산시험장(京畿道水産試驗場)의 북한산환(北漢山丸)이나 갓다가 선적불명의 고기잡이배 척이 배회하는것을발견하고 [illegible] 하척을 부잡어서 조사한결과그배는청도(靑島)서촌양행(西村洋行)소속서인 제삼소생환(第三昭生丸)(五九돈)으로 판명되엿스며 그배의 정체를조사한바에 의하면어느곳을 물론하고 금어구(禁漁區)에 출몰하야 생선을잡아서 청도로가서 파는밀어선으로 판명되엿스며 금번채포한 장소역시경기도 수산과의 금어구로 [illegible] 석수어 오백짝은 압수하고 선장이하선원을 [illegible] 경기도수산시험장에서 조사를 계속중이라는바 [illegible]

信川에强盜出現

【信川】지난 삼일오전다섯시경 신천읍량장리(信川邑良長里)에서 [illegible] 석당시(石堂市)로가던 [illegible] 우차부 [illegible] 오정선(吳貞善)(二一)이가 [illegible] 무수난타하고 [illegible] 도주한것을 [illegible] 사건발생후 세시반만에 [illegible] 수가잇나?

北支、蒙疆과의 電報取扱狀況

북지와몽강(蒙疆)지방은 치안이회복된작년十一월부터 조선과 서로전보취급을 하여왓는데 최근 하루평균 [illegible] 수효는약이백오십륙이나 되는다수에 달한다한다 그러고지난 팔월까지일년동안의 취급수효는 륙만삼천일백칠십육통이며 그료금은 십이만육천원에 달하야 한달에평균오천이백육십사통에 일만오백원이라한다 최근의취급수는 취급개시당초의 약사배로 증가되엿스며 그취급사무는천진(天津)및 [illegible]사이에 발착한것이라한다

종딱

제애비를 팔어서사 기해먹는 불초한자식

낫더은 독기에 발등찍힌다는말은 잇스나 아모리말세이기로서니 이럴수가잇나?

칠십로인이어 집자를길다 중상

〃인생칠십고래희〃라는데 이러케고도 한심세도 드문일이랄가

今日 晴曇不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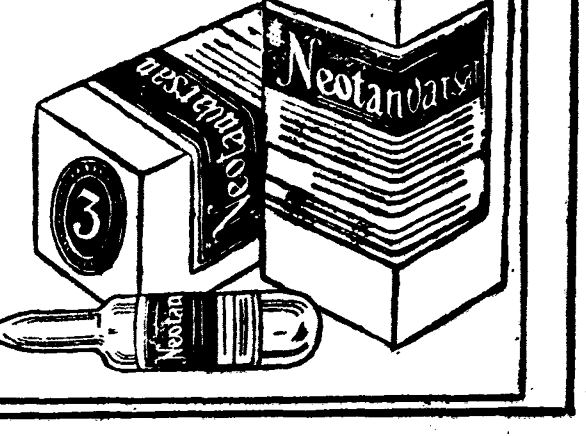
◆十一月五日(土曜)陰九月十四日 ◆干支辛丑 ◆月出午前七時一分 ◆日南中午後零時十七分 ◆日入午後五時三十二分 ◆月出午後三時四十一分 ◆晝間十時三十一分 ◆月入午前四時五十六分 ◆滿潮(仁川)午前三時二十分 午後三時五十五分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國産品の精英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橫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을期하는 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療와豫防에適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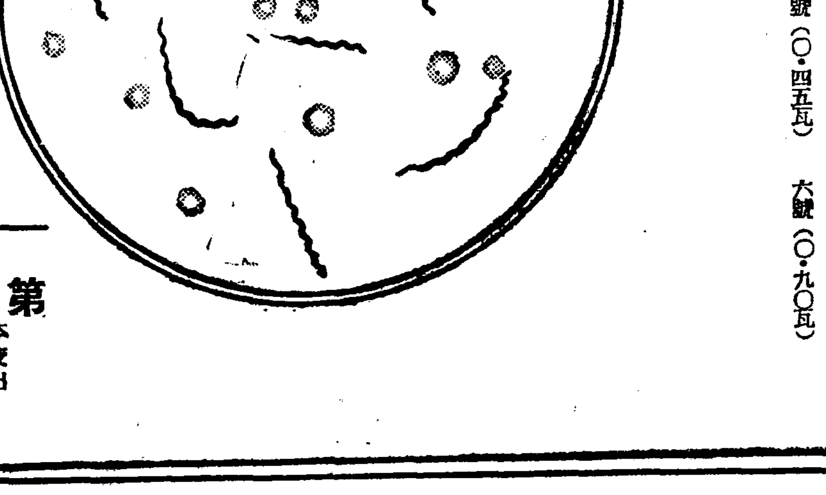
또脊髓癆、麻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ー데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瘴氣熱 熱帶苺瘡等 에도 特效잇슴

또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砒素劑應用의 모든 範圍에 良効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四號(〇·六〇瓦)
二號(〇·三〇瓦) 五號(〇·七五瓦)
三號(〇·四五瓦) 六號(〇·九〇瓦)

驅黴砒素劑



또靜脈內注射不可能의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此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ギフロン의 選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琴平町三番地
NTC

을보는 벼매매의 격전을 보이는 이때에 그와화 적으로 내지에 잇는 고지시야촌계등의 경영인 야촌조선박부(野村組船舶部)에서는 금번 지나방로의 진출을 전제로 인천에출장소를신설코 고지시(高知市)를기점으로 부산(釜山)목포(木浦)해주(海州)인천(仁川)등의 항로에서선박의 처녀항을 하기로되엇다 선복(船腹)부족의 개척은다방면으로 환영을 밧든터이며 머지안한 장래에 대련(大連)경유로 지나각지에 진출할 계획으로 발서부터 천진(天津)에까지출장소를 특설하엿스며 인천으로서는 그선박의 장래를크게주목하는바이라한다

長湍菊花展覽會

【長湍】지난삼일 명치절당일에 조선국화동호회 장단지부에서는 향례에의하야 장단동소학교 강

辻村、藤原正忠 平山豊 三宅毅郎 三戶壯夫
二、長湍郡守賞 崔鐘相

寶城에借家難

【寶城】전남보성지방에는 요지음 일반의 주택은물론 중류이하의 차가난이 극도로 심각되여잇다는데 이현상은 전에보지

開帳中의賭博團
勞働者五名一網打盡

【仁川】현수를인천부화정삼정목(仁川府花町三丁目)십이번지에둔 강원동(康元童)(三)정구영(鄭九永)(三)윤병갑(尹病甲)(三)윤남흥(尹男興)(三)리성이(李聖醫)(三)등다섯사람은 부내복도조인부로서 그날그날의 입금을 바더서밤마다 전기수소에서 도박을 한다는것을 인천서원이 탐지하고 지난삼일오후 아홉시경에 인천서원이 전기장소를 습격하야 도박개장중의다섯사람을 타진하야 본서에다려다가 엄중취조를계속중이라한다

가마니王國開豐郡에서

【開城】개풍군은 전조선에서굴지하는 가마니왕국으로 그명성을 떨치게되엿는바 즉 금년생산한 가마니수는 예정수인 일백삼십만매를 초과하야 일백사십오만매를 생산하엿다한다 그래서 동군십사면내 농가에떠러질 생산액도 십오만원의 거액에달한다는바 일반농민은 눅한기에 농촌에서 이만한 버리가 업다고하야 겨울이면 가마니짜키로 생업을삼는 인원도 실로 사만명의다수에 달하므로 이번 개풍군당국에서는 명년도 생산예상을 일백칠십만매로 목표를 삼고 관내일반농가에게 적극적으로 지도장려하리라한다

仁川松島遊園附近에 結核療養所新設
今年內로는着工豫定

【仁川】근대문화인으로서 제일 만히가지는 무서운 폐결핵(結核)병은 도회지를 중심으로 만히 발생하는영향이 만흠으로관계당국에서는 그예방에 대한것을연구하야 박멸을 시킬방침인데 지난일에 적십자사 인천부위원부총회에 출석하엿든 적십자사 부사장인 덕천가(德川公)이 영정(永井)인천부윤의 안내로 송도(松島)여에서 약십리쯤 되는 부천군문학면연수리(富川郡文鶴面延壽里)부근을 시찰하고 그부근에 약삼만평의 송림지대를 매수하야 결핵료양소(結核療養所)를 건설키로 결정되엿다는 바이곳은 아프로연천이요 뒤로는해면을 바라보는 송림울창한산으로 풍광명미한곳임으로 전시하에 잇서서 국민보건상 결핵초기의 료양이 중요시되므로조선에도 금번 건설되는것은조선내에 대규모로 건설하라는바 그료양소의 일부로 연수각(延壽閣)으로 명명하엿다는바공사는 금년내로 착수하리라는데이것의 공사가 완성되면 결핵환자에게는 일대복음이 되리라한다

감나무에깃드린初秋 ……(江華島에서)……

安城勤勞報國團
中央鐵道工事에

【安城】안성군 근로보국단원일백명은 총지휘 윤웅모(尹雄模)씨 인솔하에 중앙철도공사지양평으로 지난일일에 출발하엿다는데 연두에는 각관공서 직원과 일반유지와 단원의 가족으로 일대장관을 일우엇스며 기차가 출발하자 안성군수 안창환(安昌煥)씨 발성으로 만세를고창하엿다

永化小學校生
關北水害義金

【仁川】천진란만한 아동의심정이란 비둘기가티 연약한데가그감정이란 속일수업는 천진이다 인천부내에잇는 영화심상소학교(仁川永化尋常小學校)생도 사백여명은 대부분이 곤한가정의 자제들로서 부형들에게 학용품대금을어더 거기에서 푼푼모아 십오원오십전을 거두어서 본보인천지국에 기탁하고 관북수해에수만흔 동포들이 집과농토를 일허버리고 엄동이 닥처오이때

時局認識과 生活改善講演會
講師九氏도決定發表

오는 칠일로부터 십삼일에이르는 일주간에걸처 경기도내각군중요지에서 열릴 총독부주최의 중견부인의 시국인식과 및생활개선을 위한 강연회의 연사에대해서는 그동안 주최자측에서 인선중이엿든바 대략결정되여 이일 아래와가튼발표가잇섯다 ▲孫貞圭氏(京畿高女) ▲金賢實氏(淑明高女) ▲趙折烋氏(進明高女) ▲黃仁景氏(進明高女) ▲金鳳姬氏(梨花高女) ▲表景祚氏(梨花高女) ▲宋今璇氏(同德高女) ▲金鍾順氏(同德高女) ▲許河伯女氏(培花高女)

…이경석(李敬錫) 김영옥(金永興) 유길옥(兪吉玉)씨등을 마지하야대대교장으로 추대해오다가 대의사 좌등호차랑(代議士佐藤虎次郞)씨의 뒤를이어 현경성부회의부의장이요 전기번대연대장으로잇던 대야사랑(大野史郞)씨를교장으로 추대하엿는데 보임되면서부터 동씨의 활동으로 지산노동조합(芝山勞働組合)을조직하고 동시에 동서빙고와 주성정(鑄城町)의 도선장(渡船場)을 … 장 재직십수년기념식을 … 거행하엿다 식순대로먼저 황거요배 … 황국신민서사제창 … 숙히행하고 후원회장 김세희(金世熙)씨로부터 대야교장에게 … 증정한다음 동서빙고주성정 총대 단현주(段現柱)씨와 내빈대표로 의학박사 공등무성(工藤武城)씨의 축사가잇슨후 주연까지 성대히베풀고 폐회하엿다 (사진은 동기념식장과 의내든 표창바는 대야교장)

運轉手와車掌 入院加療中死亡
汽動車와뻐스衝突續報

【竹山】기보=지난이일 오전아홉시반에 경남철도회사 제일대이호기동차(汽動車)가 죽산역(竹山驛)을떠나 주천역(注川驛)으로 진행하야 이죽면매산리(二竹面梅山里)압교차점에 이르럿슬지음에 이천(利川)을떠나 죽산(竹山)을 향하야오든 경충뻐스회사제사천십사호 자동차와 측면충돌되야 기동차는 측면만 조금상하엿슬뿐이고 승객까지도무고하얏스나 자동차는 교차점에서 아십메돌이나 밀려가떠러저서 아조파손되엿고 운전수김경환(金璟煥)(二五)과 차장 남룡헌(南龍憲)(二二)은 중상하엿스므로 현장부근에잇든 죽산의원(竹山醫院)에 입원식혀서 응급수당을하엿스나 차장은 그날오후여덟시반에 절명되고 운전수는 삼일오전두시에 사망하엿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침안개(霧)가 끼

備荒貯穀으로 五千餘石을收合
開豐郡各振興會에서

【開城】농촌갱생운동에 박차를가하고잇는 개풍군관내 각농촌진흥회에서는 현하 비상시국에처한 농민으로서 추수때타고신곡을 방매해서 술겨마시고 먹고할것이아니라 만난을 물리치고라도 피땀을흘려지은 곡식을저축해두엇다가 이것을 후일유리하게 판매해서 비황저금(備荒貯金)을 하기로협의하얏다 그래서 각농촌진흥회가 다투어저축한정조가 오천석을 돌파하얏다는바 즉 이것은 시가사만여원에 해당한 거액의 저금이되고 볼수잇다

뱃사람을노리는 不良女嚴重團束
仁川埠頭의船舶에서

【仁川】인천부내에 불량부녀의 출몰이 빈번하야 인천서 보안계에서는 그취체를엄중히행한다는데 최근에는 무항인천으로서 신곡출하기를 따라 부두에는선박이 모이게되자 이틈미끼로불량녀들이뱃사람을상대로 남실거리는데지난삼일에도사오인의 불량녀가부두로나가는것을 순행중의 인천서원이 발견하고엄중설유를하야보내엿다는바 들은바에 의하면 그불량녀들은 치마속에술을자고 서창에가서 뱃사람을만나면 선실에들어가 술을마시고 음탕한행동을취하야 도풍엇는등 풍기상 자미롭지못한일이비일비재이므로 인천서에서는 때가때이므로 그들의 근절을시킬방침이라한다

…교차점에서 … 업섯스므로 … 가는 …

사고를 낼것이라한다

菜蔬類品評會
明治節에開催

【永登浦】시흥공립소학교(始興公立小學校)에서는 지난번에 학동들에게 무 배채의종자를 논하주어서 가정에 잇서서의그재배지도를 장려하여오든중지난삼일 명치절(明治節)을 당하야 그성적품평회를 개최하얏는바 출품자는 아동외에지도생도가명이어서 출품점수 삼백여점중에서중원(中園)시학 망전(□□)리(李)량기사의 엄중한심사를 거처서 일등심점 이동이십점 삼등사십점의 입상(入賞)을결정하얏다 당일의 래관자 약일천여명으로 지방소채재배향상상 불소한 공헌을하얏는바 더욱이 동교에서는 명춘에는 종의립선품평회(粒選品評會)를 개최할예정이라한다

鵠嶺小學校도
實現性이濃厚

【開城】개풍군중서면곡령리(中西面鵠嶺里)는 개성부와 인접해잇고 항상 부내와밀접한관계로 각종동산물이 생산되며 인구도 연년증가하야 도시적색채가 농후해가는 도중에잇스나 부근동리에는 학교시설이업고 또는부내학교에서는 부구역내에 편입된주민이 아니라하야 입학을거절하는 형편이므로 일반학부형들은 학교유치운동에 일치부터 군당국에 진정한바잇섯는데 이번 이군수(李郡守)도 동면에 곡령공립소학교(鵠嶺公立小學校)만은 기어히 실현시킬 결심으로도 도당국에 맹활동중이엿섯는데 불원간 실현될서광이 확실하다고 한다

秋期本報讀者慰安映畫大會

上演映畫 洪吉童傳 모스크바의一夜

會期 自昭和十三年十一月七日로부터 至同月二十二日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每夕七時開幕)

市內本報讀者에게無料公開

要持參招待券

主催 朝鮮日報社

004049

새마을새소식巡聽記

普光町會
幹線道路을急設 食水施設도擴充。
僻地와가튼現在의通信、機關

어태원정에서 서쪽으로 뻬친빠ー한큰길을 십오분 가량거러가면서쪽파 남쪽으로 두갈래의길이잇스니 남쪽으로난 양장(羊腸)가튼길을 드러서 또 다시 이십분가량 거러가면 산등성이에치커닭인 동리가 새보광리요 나즌자락에 총총드러선 동리가 아래보광리라고 부른다 이곳의 시고양군 한지면(漢芝面)이으로잇다가 삼년전에 경성부로 편입되면서부터 아래우의 동리를합하야 보광정이라고 하엿다 지세를보면 한강어구에 마치삼태기모형으로안저 동뒤에는 가루산이란 산이둘러처잇고 압흐로는한강이 가슴을 누르고잇서 배를타려고하나 빠더나갈테가업는 용산지대(龍城地帶)이다 이곳의 호수는 사백오호이요 인구는이천팔백 삼십삼구인이다 그런데이곳에는 도로조차 완전히 나지를안허 말로만 경성부이지 실상은이런한벽촌이도업다 하로에 면비식동태를 뒤떠들고가는 경원선의궤도가 정내를관통하건만 〃그림속의떡〃격으로 정거장은 서빙고정과 한남정바게업서 설혹 이여지지아는며 도로타고해야 이태원정쪽과 한남정으로 가는 조고마한 간선도로바게는 아모것도업다 또한 통신시설을보다면 정내전화선이 부설되지안허 전회에서 전화를 가설하고저하나 전화갑외에 가설비로 구백여원이든다하고 우편통이라고는 마치 석유궤짝만한것이 한개매여달려잇을뿐이다 이러므로 때로 속달우편을 전하고자하나 할수업는 궁벽한곳이다 그런데 요지음 경성부에서는 이정과 한남정과 한병하라고 권유하나보광정으로서는 려사상견지로나또는 열반주민들의 심정으로나 전부가 합병하는것을 조하하지안허 부의지시를 놀려가며 려성이 정무처리를해가고잇서 도리어 회합별문제바람에 정민에 단결력만 더욱공고해젓다한다 정회편으로 총대장영환(張英煥)씨를 차즈니 다음과가티말한다

우리보광정은 제일먼저 정내의 간선도로확장문제가 급선무입니다 현재 이태원정쪽과 한남정쪽으로 뚤린 가느다란 길이잇스나 폭파노변이 불완전하고 이웃동리인 서빙고정이나 동빙고정을가라면 경원선철로를 밟지안흐면 산등성이를 도라가느라고 삼마정이나 걷습니다 그리고 또여름 홍수기에는 이경원선궤도미테 수문으로 한강물이 거실러들어와서 막대한수해를 입으므로 회합이잇슬때마다 의론중입니다 도전번 전회추첨당시에 요행히 우리정내에사시는 조남포(趙南杓)씨가 전화가당선이되여서 일반도 기뻐하엿는데 그를 가설하고자 하엿드니전화값보다 가설비를 구백원이나 내라고하야 여지껏못걸고잇는데 이역시 경성부라면 체신국에서도 생각할바가 아닌가? 동회문제도긴절합니다 정내에잇는 우물이 수가 적으므로 놀놀처정이지요그리고 우리정은 경성부에서한남정과 한병하라고 합니다만은 우리일반이다 찬성치안코굿게 단결이되여서 열성겻해가고잇습니까 합병하고서도 안습니다 운운

▲참고=昭和十二年十一月末現在 普光町 戶數四〇五 人口二、八三九

(사진은=보광정총대장영환씨)

家庭醫學

腸病으로 죽는이가第一만타
★腸을酷使하는日本人의食餌

우리日本人은 어떤病으로 가장만히死亡하는가를 統計에依하야 調査하여보면 大體다음과가티 알수잇습니다(昭和十年度死亡者數)

下痢及腸炎	一二三、一一三
肺炎	一〇五、〇七八
腎臟炎	五九、五五三
呼吸器의結核	五五、一〇一

——以下略——

이것을보아도 알수잇슴과가티 下痢와腸炎으로 죽는사람이 가장만흔데 이에 또한 腸結核과 腸疾扶斯로因한 死亡者數를 加算한경우

=腸病으로죽는사람=

은 正히全死亡者의 二十五%에 達하는것입니다

何故로 日本人은 如斯히腸病으로 죽는이가만습니까 — 거기에는 여러가지原因을 들수잇겟지마는 가장重要한것은우리의 日常食餌와習慣에잇는것으로서 日本人의一日의糞便量은 歐米人에比하야 大端히만습니다 이것은 日本人이 比較的粗食한다고는할수업을지라도 恒常殘滓가만흔 食物을먹는習慣에서 腸에큰負擔을 强制하고 長年月間에 次第로 그機能을 病하게하는것입니다

다음에 腸病에걸린경우 意外로 이것을 簡單히 생각하고마는이가 만흔것입니다 例를 들면 藥劑의 服用으로도 말할지라도 徹底라고하면 어떤것이나똑

—여러가지症狀—

이잇서서 그에對한 加療法도여러가지이므로 容易히治療效果를 보지못하고 도리어素人療法때문에 病이慢性化하는일이만흔경우가잇슴니다 이것은 너무療法을 對症的으로생각하는까닭으로서 下痢나 便秘나 이것을病原的으로보면 腸管의機能의 異常으로 이러난다는點에一致하는것이므로 이病原인腸管의機能異常을 바로게하는方法을講究하면 治療效果를어들수가잇는것입니다

藥劑에—一劑藥劑로서有名한『錠劑わかもと』는即

=病原治療를 目標로하는=

生物劑로서 十數種以上의活性酵素와 아미노酸 비타민等의豊富한 榮養素 호르몬性物質等은 衰弱한腸組織의細胞에 賦活해서 그障碍를 除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從來의對症的인腸藥劑或은下痢劑等과가티 長期間連用해도 習慣性, 副作用을 이르키는일이업고 一劑로써 急性慢性腸가다루의 여러가지症狀에對하야 效果를가지고잇스므로 家庭常備藥으로서 가장重要합니다

胃擴張을이르키는 세가지原因
가장만흔것은아도니ー性胃擴張

어떤病이라도 다그러치마는病이생기는原因을알고 그에適應한療法을施行함은 가장緊切한일로서 特히慢性病中에도 經過가긴胃擴張等은 쓸데업시姑息的인手段에만依하지말고 病理에따라서治療의方針을 定하지안으면안됩니다

胃擴張을이르키는原因에는 여러가지가잇는데 醫師는이것을大別二種으로區別하고잇습니다 그

第一 은 아도니ー性胃擴張—또는 原發性胃擴張이라고도하는것으로서 胃의筋肉이弛緩하야 充分히緊張力이업기때문에 次第로胃가擴大한것으로서 治療도오래끌고 또胃擴張中에서도 가장만흔種類입니다

그第二는 幽門狹窄性의胃擴張이라고하야 胃에서十二指腸에通하는關門 即幽門에故障이잇서서 食物이胃中에停滯하야 여러가지醱酵作用을 이르켜서 瓦斯를發生하므로 胃壁은次第로커저서 胃擴張이 되는것입니다

第三은 暴飮暴食에依하는것으로서 農夫等으로不消化物을 暴食하는버릇이잇는사람이나 또는비ー루, 술等을 만히먹는사람에게만하므로 胃擴張으로서는 가장單純한것입니다 普通이暴飮暴食의習慣을끈느면 次第로恢復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第一과第二의 原因으로생기는胃擴張이 만흔데 이것은오래동안 질질끄러온 慢性的인故로 治療도

主要

즘처럼 고약해서 消化劑와기니네ー劑苦味劑等을먹을 지라도 習慣이되면 듯지안케됩니다 또胃洗滌等은 一時는氣分이 조치마는 이것은醫師의손을거치지안으면 危險합니다 따라서 胃擴張의 治療는아무래도 病原에드러가서 組織細胞에 活力을주고 이에依하야衰退한機能의恢復을 圖謀하는것이조흐므로 그方法으로서 最近推奬되고잇는것은 『錠劑わかもと』의 服用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아시는바와가티 헤ー劑는 藥用酸生物에다른 有益菌을 複合製劑한것으로서 이中에含有한 多種의酵素는人體細胞中의

酵素

와가튼 作用을가지고 잇는胃腸의 病細胞에賦活하야 衰弱한機能을 活潑케하므로 自然消化吸收도 조케됩니다

또한헤ー劑는生物的故로그體中에는自己의生存의必要로各種의비타민을産出하야 人體에必要한모든榮養素가잇서서ー劑로서胃腸藥 · 榮養劑를兼한效果가잇스므로 從來의單一化學劑等과달리效力이確實綜合的으로行하여지므로여러가지腸胃病도 自然히恢復하옵니다

「錠劑わかもと」는東京芝公園大門內側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三百錠入一圓六十錢 千錠入五圓이라는一日分겨우 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 販賣로發賣되고잇습니다

實話
一日數錢으로
慢性胃腸病이輕快
(靜岡) 加茂屋 順

小生은 本年二十三歲이온대 幼少年時부터 胃腸을害치고以來消化不良、胃酸過多症等의胃腸病으로 苦生을 해왓습니다 그우에 本年五月頃부터갑자기 頑固한便秘에 걸렷습니다 食慾은次第로減하고 身體가衰弱함은말할것도업고 이過重한苦痛에每日懊惱하고잇섯습니다 그동안 조라는藥은 다먹어보앗스나 效果는 그때뿐으로서 自暴自棄가되야 그대로 버려두엇습니다 近來新聞雜誌等에 宣傳되고잇는『錠劑わかもと』를 發見하고 또 服用者의體驗에 依하야 實로 效力이만하물아랏스므로 곳 一圓六十錢瓶을 샀습니다 服用을 始作햇든바 最初는 何等다를이업는듯 하엿스나 그래도 斷念치안코 連用하든동안 마천내 便通이 잇게되엿습니다 每日氣分조케便을排泄하게되고또長年月苦生하던 胃腸病도昨今은 거이常便으로도 恢復하야이즈음은 輕快해졋습니다 小生의기쁨을 … 싯시요 겨우 一日數錢의藥으로 그러듯 頑固한胃腸病을 放逐하엿스므로얼마나 그藥劑가 誠實本位로한 良心的인藥劑인가를 알수잇고 또한그眞價를 如實히말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愛國公債進呈 大特賣

銃後の務 愛國公債

錠劑わかもと 買求時마다大懸賞問題附呈外賞品呈。 應募正解者에抽籤으로一等愛國公債二十五圓分一枚식五百本、二等拾圓分一枚식五百本、其他五等까지賞品多大

長篇小說

薄命 (134)

韓龍雲 作
鄭玄雄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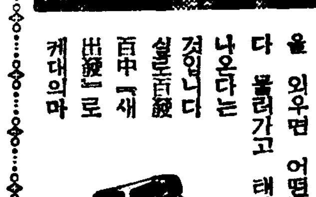
결혼 卅一

대철이를 보낸 순영이는 속으로 치부하야 두엇던 술잔수를 다시 계산하야서 자기의 돈으로 치르고 잘 자리에 누어서 대철이게 대한일을 생각하야 보앗다 대철이는 분명히불평한 기색으로 갓는데 그 이유를 알수가 업섯다 자기가잘못한일이 잇는가 하고 여러가지로 생각하야 보앗스나 별로잘못한일이 업는것 가튼데 자기로서 그러한 은인을 대접하라면 안주도 특별히 차리고 술도 보통으로 술집에서 파는술 이외에 고급인 외국술 가튼것을 대접해야 할터인데 그러치 못하야서 불평이 생긴것인가 하고도 생각하야 보앗스나 여러가지 형편으로 헤아려서 그럿치도 시프지 안코 혹은 수영선수를 대접하는데는 다른사람과 달라서 특별한 의식(儀式)이나, 움직으로도 유달른 움직을 차리는 법인데 그러치 못하야서 노염이 낫것인가도 생각하야 보앗스나 가령 그러타할지라도 자기는 그런것을 전연히 모르는 터이오 그자리가 무슨 예법이나 형식을 차리는 좌석이 아닌바에야 대철이로서 양해를 할직한 일인데 다시말하면 자기가 대철이와 결혼을 하야서 소원을이루는데에 영향되지 아니할수가 업는 까닭이엇다 그것이 만일 자기의 힘으로써 모면할수가잇는일이라면 자기몸의 방축을 면하더라도 대철이의 절박한일을해철수가 잇겟지만 그러치못하야 빈약한자기의 힘으로써 도저히 어찌할수가 업는일이라면 그때가서는 어찌할것인가 그러타할지라도 이세상에서 남녀가 힘을합하고 마음을 가치하야서 어려운 세상을 살어나가는일이 여북이나 만흔가 그러면 자기의힘으로써 대철이의 어려운일을 가치겨그면 될것이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대철이와 결혼이된 뒤의 문제이어니와 이른바 대철이의 절박한 사정이라는것이 과연 자기와 결혼할만한정도까지는 허락이 될것인가아닌가가 큰문제어서 몹시 괴로웟다 그러다가 순영이는 자꾸만 옥파고 드려가던 생각을 돌렷다 아까 대철이가 한숨을 쉬고 하던말이 우연한 말이나 아닐까 또는 다소 곤난한일이잇더라도 그것은 일신상의 생활문제라던지 소소하고 절박한일로 자기와 결혼 할수 업는정도까지 박절한 사정이 아니라 할수업는것이 여의치 아니하므로 술기운이 잇는 집에 단식을 밝힌것이 아닌가 그러라면 그것도 대철이를 위하야 불행한일이 아닌것은 아니나 자기의일에 대하야 낙망할것은 조금도 업을뿐 아니라 대사를 경영하는데 철이 인격에 대하야 도리어 존경할바라고 스스로 위로하엿다 순영이가 꿈이아닌 공상에 잠겨서 날새는줄을 모르게된것을 아는사람이 잇다면 동정할만한 일이엿다

대일본축음기주식회사(大日本蓄音器株式會社)에서는 조선영업소(朝鮮營業所)를 이번 새로히 유상중(柳尙中)씨가 소장(所長)으로취임하야문예부는 박영호(朴英鎬)씨 영업부는 이상래(李相泰)씨가 담당하고 사무소는 시내종로육정목이칠륙(鐘路六ノ二七六)에 두엇다고한다

晴晴傘

—撮影所隨筆—



撮影途中에 구름이끼면 太陽에 끼어도 光線관계로부득이 크랭크는 빗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만약태양이 무자비스럽게도구름속에 숨어버리는경우면은 여간 애가타는것이아니랍니다 그러케기다리는시간이 오래면 오랠수록 여러의 撮影이란 기가막힙니다。

오늘은·어디다녀오는 구름인가 아침나절부터 몽게몽게 피여오르는 구름의조각이 몽게몽게와선 지금 꼭그와가티 아까운 시간을우리들에게 가저다주엇습니다 李圭煥감독은 아까부터 카메라며에서 무심한하늘만처다보며 매우초조해하엿고 梁世雄기사의 신경질이란 평소에 보지못하게 대단합니다 근방 사면을 둘러보니 모두그모양입니다 위선 저—쪽에 金漢군은 오늘 나올 장면의조서잇 그대로 어데에든지 누스코트로 사뭇삐앗는 晴晴 여서한참 정하는 지엽이고 좋은 세게 최초의 제작주엽으로 특별히 한 朝鮮映畵 같으면 권하한 편입니다 太陽의 撮影場에서 도좋무자비한것이잇습니다그래서 여기새로청家雨한 것이 바로朝鮮式 晴晴傘입니다 이晴晴傘만퍼들고 이동일들어서서 주문을 외우면 어떤구름 짱도 다 몰러가고 태양이 다시 나오다는 것입니다 실로고언 百中「새出發」로 캐메라마 엇답니다 晴晴萬歲!

새出發 로케스냅 ③

(로케通信班記)

現代批評의 性格

十九世紀批評의 結論的考察

❶ 崔載瑞

그러나 페이터—의 이러한弱點이 가장惡情的으로 나타나잇슴은 同時代作家에對한 그의批評에 잇서서이다。엘마·모—어는 그의『페이터—論』가운데서 이點을 痛烈하게 論難하엿다。가로되『批評家의 第一困難한때는 그와 同時代인 作品을 評價하는 그手腕과 確實性에 잇다。이點에 잇서서 페이터—는 決코 達人은 아니엿다。假令 그의『거—디안 諸評論集』을보아도 거기에는 勿論 읽을만한 價値가 잇는것도 만치만 全體的으로보아 鑑識力이 缺乏하엿기때문에 읽고난뒤에讀者의 맘가운데 發達된價値感이라는것을 남겨주지안는다。……率直히 말하자면 페이터—는正當한意味에 잇서서 批評家는아니엿든것이다。』나는 이單純하고大膽한 陳述가운데에 現代批評의性格을 풀어볼 열쇠가 드러잇다고 생각한다

〔同〕

그러타면 이모든—모든이라고하지만 실상은 그中에서 몃가지만을 들어 紹介한데 不過하지만—外部的條件을 떼여버린創造的批評이란 어떠한것인가? 그것은 天才와趣味새에 남어잇든 最後의障壁을마자撤廢하야 批評이 드디여 一種의創作行爲에까지 變質된狀態이다 批評의任務가 압서말한바와가티

〔表〕

表現의 硏究이라면 批評家自身이 藝術家가 衛品을 再構成한다。그와同時에 그의美的判斷은 創作行爲그에 不外하게되다。어리하야 天才와 趣味를 同一視하는것은近代思想의 最時의 練磨이라고스핑거—는말하얏지만 실상은批評의失權의 最後段階이다。이點에關하야 우리들은 에리옷트의 다음과가튼말을 銘心할必要가잇다。創作行爲의 大部分이批評行爲라고한대서 꺽구로所謂創造的批評이 成立되는것은아니다 創作은 自己目的이지만도批評은 그本來의性質上 언제나 自己와다른 딴물건에關한 일이기때문이다。우리는 批評을 創作에다 接續식힐수는 잇서도創作을 批評에다 接續식힐수는 업다。

모올톤敎授의 歸納的批評이라는것도 그푸로세스가 若干科學的이라뿐이지 그機能에잇서선 印象主義的批評과 大差가업다。그것은 要컨대作品안에 提示되여

〔印〕

잇는證據를 細密히觀察하야 어떤一定한假說을세우고 再次三次의觀察에依하야 이假說을確證하고 이리하야 到達된法則을 가지고 되도라서 그作品의內容을說明하랴는것이다。

그리고 作品의內容을 잇는그대로 解釋하랴면 두가지條件이必要하다。위선 文學全體에對하야 進化論的見解를 가질것—이것은 固定된傳統的標準에 拘束됨이업시 各作品을 그自身의立

矛盾되는것가티도 생각되지만 스핑거—는은 進化論을 靜的으로解釋하고 모올톤은 動的으로解釋하얏다는 相違뿐이고 兩者가 말코자하는바는 同一하다。即 解釋途中에잇서서 判斷作用을 넘어서는 아니된다는것이다。判斷과 解釋은 물과 기름과가티 서로容納치안키때문이다。

〔解〕

歸納的批評家의 눈으로볼때 趣味의相違는잇서도 價値의相違는업다 各文學型은 進化論的法則에 依하야 發展된것이고 또 各其 獨自의內面的法則에 依하야 支配되여잇기 때문에 甲乙間에 價値의差異는 생겨날道理가 업다。어리하야 모올톤은『藝術에잇서선 判斷그自體가·偏見이다—新奇性에對한 偏見이다』라고 말하엿다 그러나 에리옷트도 말한바와가티『조호詩와 납븐詩를가릴줄 아는能力이야말로 批評의究極目的이 作品鑑賞에잇다치드래도 조호詩를 조호詩로알고 鑑賞하는것과 납븐詩를 조호詩로알고 鑑賞하는것과는 大端히 동떠러지는일이다。』

待望의名畵 紙上巡探

春·愁

歐洲全體의 未來를 左右할 運命의나라『체코슬로바키아』의 映畵가 朝鮮에 처음輸入되어 絶讚을바든 "春調"、어作品을 監督한 "구스타프·마하티"는 招聘되엇다가 ……라는 映畵로 原名은『발레리네』(Ballerine)다 『죠제페·아다미』의 原作小說로 伊太利의 世界的오페라劇場인스카라座의 舞姬 "파니"의生涯를 脚色한 것으로 춤과 노래로 로맨스의 企待의作品中의하나 될모양이다

봄날의 프른잔디 밧어떠우에는 봄을속사기는 靑春男女의 사랑에紅潮된얼굴들이 보인다

"파니—"와 "마리오"는서로 사랑을 속사기면서도 오페라劇場의舞姬로잇는 "파니—"는 舞踊家로서 이름을날림 慾望때문에 新聞記者인 "마리오"의 ……인 "파레—지"와激烈한論爭을하다가 그만그자리에 卒倒하고말엇다 지나친老齡으로서의激務이 드디어 그의最後를 짓게하엿다 最後로 愛娘 "파니—"에게 남긴말—

『파니— 너는强한意志를가지고 끗까지 藝術의길에精進해다오』

『파니—』는 갑자기 닥쳐온 悲哀속에 茫然自失하고잇슬때 차저온 愛人『마리오』의 情에넘치는慰撫 그러나 아버지의남기신最後의遺言! 『파니—』의親友로 只今은 카바레에서 노래부르는『피에란』에게好意를 뵈여준 米國의豪遊客『미크로폴스』가 ……

『舞蹈에 專心하는것두조치만 몸과마음을맛기는게第一幸福스러워!』

그러치만 女子란사랑하는사람에게 몸과마음을맛기는게第一幸福스러워!』 이말에 『파니—』는 『마리오』를 생각지안흘수업다……『파니—』는 『알렉사』라는 一流舞踊家에게 紹介를바더 그一座에 契約이되엿다

그러나 『마리오』는 『알렉사』에게 『파니—』의 舞踊生活을 極力反對하엿스나 드디어 『파니—』는 『알렉사』의說服에 그天分과 아버지의遺志를 밧들어 새로히 舞踊練習을 시작햇다 그런데 演出마든 『라우리』와 끗까지남어서 『괴날레』練習을하는데 이두사람의藝術的陶醉는 異常한恍惚境에빠저 이두사람의行動을 監視하고잇던 『마리오』는 드디어 모든것을斷念하고 혼자 旅行의길을떠나라고햇다 뒤를 따라온 『파니—』에게

『당신은나보다 舞踊을더사랑하고잇소 사랑보다도 舞臺의 成功을더 버라고잇는것이요 당신은 당신갈길을가시요 나는……』

이한마디를남기고 아메리카로 가랴던『마리오』는 그다음날인『파니—』의出演初日 그대로떠나지못하고 衣裳室에花環을 보내엿다 舞臺에서 나와 衣裳室에서 『마리오』의 마주막 편지를읽은『파니—』는 더참을수업서 衣裳을그대로 거더차고 그냥 파니—를 차저뛰여나왓다 나오다가 廊下에서『마리오』와마주치자 다시또싸움으로끄틀마엇다

『파니—』는 紹讚속에서 成功의기쁨을안고 劇場에서나왓다

다 ……가 여러해를 거치나 ……리사라저버린『마리오』의 幻影을안은채 쓸쓸히『피에란』를차저와서 그러나『피에란』의집에서偶然히 집어든新聞紙를보고『파니—』는 깜작놀랏다『新星파니—』의成功을보고라는 題名下에『마리오·바란치』라는 署名이씨여저잇다 『마리오!』 그는只今도『파니—』를 사랑하는마음으로 愛人의成功을 빌고잇는것이다

新作唱劇調

內金剛歌 (三)

金剛巡禮

金錫九 作

저보다 느진중모리

詩人騷客 詩人騷客을 相思夢을 흘려게여 白玉가튼 고은몸을 액감이시 드러내고 上下八潭으로 오르락 나리락 出門살 出門살 하니 靑山은 萬疊이요 綠水는 千疊이로다 이러듯이 哀怨悽切 꿋도한숨 쉴 아릿따운 그모양이 瀑水에비치어에 나가든美人을 이러케바러두고 어느좋을 맛처서다니는 그任이 野俗하고 薄情하다 玉가튼얼골과 까만머리를 목욕씻고 빗던곳이 玉女洗頭盆이요 몸단장한곳이 手巾歲이요 手巾빼든데가 手巾바위요 그의몸이 비처던곳을 影池이라 하는구나 仙人天女의 몸이 神秘하야야 할것이엇지만 俗世 사람에게 들키게되여 普德閣氏는 부끄러워 몸을 숨기고말엇다

(진양)羽調

石壁에 좋은길로 올라가니 이몸조차 아름다운 影池로구나 法起峰을 처다보니 봉면날리갈듯한 摩子가 數百尺 구리기둥에 대강대강 버티여서 제비집과가티 되엿스니 저것이 普德窟인가 黑龍潭 琵琶潭과 碧波潭을 求景하고 噴雪潭으로 올라가니 臥瀑으로 흐르는물이 岩穴에와 부듸치니 은은한 岩穴에서 飛沫이 자옥하고 寒風冷氣가 뼈속에 사모치며 우렁찬 큰소리는 간담이 서늘하다

(사설)辭說

萬瀑洞은 조흔風景과 한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가잇다 그이야기는 玉女洗頭盆에서부터 普德窟에와서 마친다 萬瀑洞은 普德閣氏의宅이라고 이르는데 閣氏는아마 河川溪谷仙女이던가보다 그런데 閣氏가 情郞을이별하고 上下八潭으로 往來하며 任을그리던 모양이던

眞珠潭

(아니리)

그가禁足한것이 안房이 서방님 올려둘에 모신普德閣이가한다 그런데 어찌 豪傑하시지 밧어서 아니되는 일이엇고 求하면반드시 알는때 시願하야주시다하므로 新郞하는 士女가 끈허지지 안는다고한다

(중중모리)羽調

眞珠潭드러가서 寒光寫의 奇觀보고 羅漢峰을 처저보니 獅子岩 처다보며 次次城潭을 歷歷히 살펴보고 火龍潭으로 드러가니 火龍은 간곳업고 물소리만 雄壯하다 鬱蒼한 숲속으로 摩訶衍 차저가니 內金剛의 心臟이요 東方第一禪院이라 三十餘名和尙들은 面壁端坐한然後에 靜肅히 參禪한다 伽藍洞을 올라가서 左右를 살펴보니 淸秀한 萬朶芙蓉 무엇이라 形容하라 오던길로 나려와서 萬灰庵 드러가니 海上龍王 靑龍이요 南巡童子는 白虎로다 夕陽을 등에지고 白雲臺 올라가서 白雲가티 눈이부신 衆香城 바라보니 玉筍과 琅玕으로써 一幅長林 이루엇다 三神山이 이곳인가 羽化登仙되엿구나 칼등가튼 石壁길로 千辛萬苦 나려가서 湧列한 金剛水로 솟아지보니 奇人絶妙 可觀이다 佛地庵도 世祖大王께서 留留하시며 新願하시든 데요 毘盧峰을 오르려 하는때 마침日氣가조하 이런多幸이 업다

(진양)羽調

놉흔가튼 石壁길로 金서더리 銀서더리 붓잡고서 허유허유 올라가서 동성마루에 當到하니 上淸寶殿에 올라온듯 장쾌한 그것보다 威嚴이 아울은다 어디서 부러오는바람인지 처어다보니 白雲天이요 내려보니 萬二千峰이라 東으로 바라보니 東海之東無東을 浩浩蕩蕩 끄리 몰을 虛空에 던지려한다 世上에잇을소냐 萬二千峰金剛山이 毘盧峰을 中心하야 奇形色色 悅愢하니 어찌아니 壯觀이냐 龍馬石을 살펴보고 麻衣太子陵에 參拜한後 九成洞 나려가며 九天瀑 朝陽瀑을 歷歷히 求景하고 다시올라와서 久米山莊에서 꿈世上에 드러갓다

今日의運動

◀全日本學生氷上=一月七、八兩日間(上諏訪湖)
◀全日本中等氷上=一月十一、二兩日間(諏訪湖)
◀十回全日本氷上=一月十七、八、九의三日間(上諏訪湖)

拳鬪=朝鮮拳鬪聯盟主催 朝鮮日報社後援 第五回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兼 比律賓遠征 選拔 朝鮮豫選戰第二夜午後七時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 (入場料)=一般五十錢、學生軍人無料

蹴球=朝鮮蹴球協會主催 第十回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 中學部準決勝戰…中東對培材(午後零時半) ◇專門部決勝戰…普專對延專(午後三時半)以上全京城運動場(觀覽料=一般三十錢、學生十錢、軍人無料)

籠球=朝鮮學生籠球聯盟主催第…回 리—그第二日 普專對法專 延專對… 全部延禧(觀覽無料)

럭비=滿鐵對鮮鐵 午後二時半 龍山鐵道球場(觀覽料=一般三十錢、學生十五錢、軍人無料)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短篇小說 …四百字原稿紙五十枚以上七十枚以內
賞=一等一篇 壹百圓 二等一篇 五十圓

★戲曲 …一幕짜리、四百字原稿紙三十枚以上五十枚以內
賞=一等一篇 五十圓 二等一篇 三十圓

★文藝評論 …題目隨意、四百字原稿紙三十枚以上四十枚以內
賞=一等一篇 三十圓 二等一篇 二十圓

★詩 …題目、長短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時調 …題目長短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童話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二十枚以內
賞=若干篇 每篇 十圓

★童謠 …題目長短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實話 …實際잇든일로서四百字原稿紙二十枚內外
賞=若干篇 每篇 十圓

★兒童作品 …自由畫、習字、作文
賞=入選品에薄謝進呈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注意 應募作品은 如何한境遇를 不問하고 一切返還치아니함 原稿末尾에반드시作者의 住所姓名을 明記하고 封皮에新春文藝라 쓸일

入賞作의 版權은本社所有

朝鮮日報社學藝部

라디오 프로그람

五日 (土曜)

◇午前七時五一分(東) 皇居遙拜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市勢
◇正午 (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東) 土曜코너 1—三(第四十五回) 만돌린독빼니스의謝肉祭』 比留間기누子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零時五五分 蹴球試合實況『全朝鮮蹴球選手權大會中等部決勝戰』—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二時三〇分 럭비試合實況(國語)『全滿鐵—鮮鐵』—龍山鐵道球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繼續 蹴球試合實況(同上)
◇同六時 童謠 一、齊唱 바람불어요 金英一謠朴泰鉉曲 二、獨唱 고향길 尹石重謠 同 三、獨唱 물새발자욱 金英一謠 同 四、齊唱 기차노리 李披峰謠 柳一純曲 五、獨唱 우리집 金晳洙謠 朴泰鉉曲 六、獨唱 단풍닙 尹石重謠 柳一純曲 七、齊唱 누가누가잠자나 睦一信謠 朴泰鉉曲 八、獨唱 옷은우는새 林마리아謠 同 九、獨唱 라디오 白牛謠 同 十、齊唱 눈오신아침 尹福鎭謠 朴泰俊曲 獨唱 金叔伊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編曲과指揮 洪蘭坡 白鳥童謠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 金晋燮
◇同八時 (東)獨唱 一、滿洲歌 가、夜來香 나、何日君再來 二、日本歌 가、荒城의月 나、愛國花 다、마음의자장歌 三、滿洲歌 가、五芳齋 나、桃源春夢 四、我的心靈(코로라도의달) 伴奏 東京放送管絃樂團 編曲並指揮 栗原重一 (李香蘭)
◇同八時三〇分 新民謠 一、豐年歌 二、사발歌 三、늴리리야 四、天安三巨里 五、新高山打鈴 六、방아打鈴 七、梁山道 八、金剛山打鈴 鄭明月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同九時 南道歌謠 一、報念 二、六字배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五、珍島아리랑 朴小春 成秋月
◎新人의밤 (第二夜) (平壤)
◇同自八時
◇同至九時三〇分 一、歌謠曲 1、靑노새嘆息 2、시달린가슴 3、離別의노래 4、南쪽의旅愁 趙永根 韓靑波 伴奏 平壤라디오앙상블
二、피아노獨奏 舞踊의勸誘 尹永淡
三、歌謠曲 1、沙漠의恨 2、못업는鄕愁 3、木浦의눈물 崔春玉 蘇利勳
四、기타—獨奏 라·팔로마 李基
伴奏 平壤라디오앙상블
五、獨唱 1、오내사랑 2、먼—신라루치아 3、가을 4、새벽鐘 李仁順 玉芳
六、西道歌謠 1、간아리 2、悔心曲 3、箕城八景歌 4、…
七、歌謠曲 1、處女日記 2、눈물젖은豆滿江 3、上海消息 4、日之丸行進曲 金寶來 金塞淳
伴奏 平壤라디오앙상블 吳福根 韓淳根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東)時報
◇同一〇時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一〇分 地方으로보내는뉴—스 中等國語講座 李完應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 土曜코너 1—三
◇同六時 (大) 童話劇
◇同六時二五分 (大) 郷土話
◇同七時三〇分 (東) 歌謠
◇同七時四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獨唱
◇同八時三〇分 (東) 浪花節
◇同九時 (東) 小說 德川夢聲

六日 (日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九時三〇分 (九局)第七回兒童歌謠音樂會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時報
◇午後〇時五分 合唱(레코—드)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繼續 蹴球試合實況『全朝鮮蹴球選手權大會中等部決勝戰』—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二時三〇分 럭비試合實況 (國語)『滿鐵—全京城』—京城龍山球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繼續 蹴球試合實況『專門部延專對普專』(同上)
◇同六時 하—모니카 기타—二重奏 一、軍歌『上海消息』三界稔作曲 二、家庭音樂集 金城園編曲 1、슈—베르트의자장歌 2、저녁鐘 3、로—레라이 4、旅愁 三、太平洋行進曲 瀨戶口藤吉作曲 하—모니카 金城園 키타— 金白紋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克苦와人間味』 李敦化
◇同七時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라디오小說『人情』—方春海作 池京順
◇同八時四〇分 京畿歌謠 一、赤壁歌 二、휘모리 三、首陽歌 申花中仙 全光泰
◇同九時 拳鬪試合實況—朝鮮日報社講堂으로부터中繼—『第二回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兼比律賓派遣選手選拔戰』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映畫は日活
二日より 悲劇とレヴュウ
◇日活超特作 倉田文人 監督
花柳小菊·黑田記代·見明凡太郎·伊澤一郎 演
北へ歸る
純正喜劇 映畫化された美談
◇日活特作 大阪名物第二の寶塚
月形龍之介·澤村國太郎 演
度胸千兩
◇スイングショウ
皆樣憧れのターキー一座 男裝の麗人三十餘名出演 平壤始めての本格的女ダンス
◇朝日ニュース
偕樂館

東洋劇場
十一月五日밤부터 靑春座歸京公演第一週上演劇目
南宮春作 好事多魔 一幕
林仙圭作 靑春 四幕

平壤 大劇
二日より特別封切
◇東寶超特作 長谷川一夫 山田五十鈴 初顔合せ
原作 川口松太郎 演出 成瀨巳喜男
鶴八鶴次郎
時は大正の初期一世を風靡せし新語りの二名人の纏綿たる哀情悲譜
◇パラマウント超大作 チャールス·ライズマ監督
お醫師の日記
◇パラマウント特作 ジョウジ·バンクロフト ヘレン·バチェス 主演 マクス·マーシン監督
密林の王者
パスター·クラブ フランセス·デイブ 主演
讀賣·京日·パ社 ニュース

好評! 絕讚! 爆笑隊
一日間延期(今四日)
十一月一日—三日 三日間 晝夜二回 晝二時 夜七時 料金 三〇·二〇
漫談、漫謠、넌센스、스케치、(寸劇)드라마、喜劇
★次週上映★
金蓮作『戀愛合重線』一幕
『가을의哀愁』一幕
團成社 電話光三四九三番

松竹映畫
二日より封切
◇松竹大船特作 婦人倶樂部連載 川口松太郎 原作 野村浩將 監督
愛染かつら
田中絹代·高杉早苗·佐分利信·上原謙 主演
◇新興特作
柳生旅日記
大谷日出夫 主演
◇松竹大船喜劇 松村淸四郎 監督
明朗親子 總動員
坂本武 三井秀雄 主演
各社ニュース
平壤 キネマ